

알고싶습니다

(지상강좌연재 8 회)

성병의 종류와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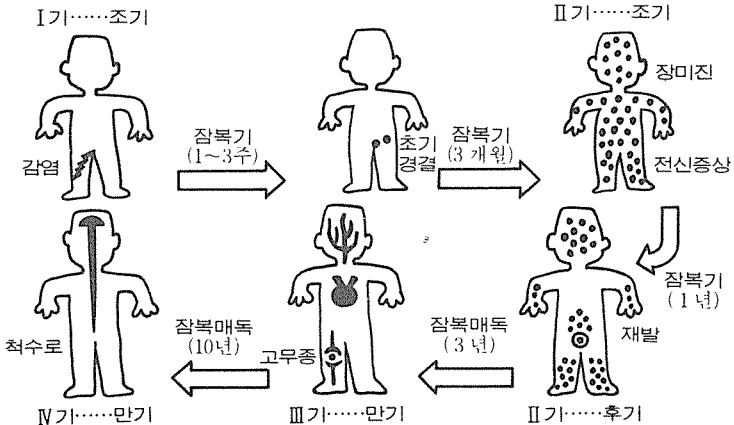
가. 매독

1 키스만으로도 전염

매독은 성병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병으로서 “트레포 네마·파리둠”이라는 세균에 의해 옮겨집니다. 그런데 다소의 증상이 있어도 아프지 않고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도 증상이 자연히 없어지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해버리거나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매독은 선천적으로는 태아시기에 어머니로부터 태반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후천적으로는 성행위나 키스, 수혈 등에 의해 감염이 되지만 그중 성행위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90% 이상이나 됩니다. 또한 매독은 진행과정이 길어서 20-30년이나 걸리기도 하며 대개 1기, 2기, 3기, 4기로 구분하지만 초기일수록 전염력이 강하고 특히 2기때가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입안에 있는 상처에 의해 키스만으로도 전염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매독의 증상과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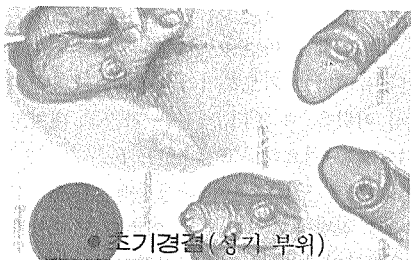


② 완쾌로 착각되기 쉬운 초기증상

제 1기 증상-병원체가 접촉된 부위의 상처로 침입하여 대개 3주일이 지나면 그 부위에 팔알에서 손톱크기만한 짙은 홍색의 작은 응어리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한개이나 때로는 두개이상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초기경결” 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 주위가 딱딱하나 차츰 혈어서 께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초기경결은 남자에서는 귀두부나 포피에 여자의 경우는 음순과 요도구주변에 주로 생기나 때로는 입술, 혀, 유방등에도 생



● 초기경결(성기 부위)

깁니다. 감염후 6주일이 지나면 초기경결 주위의 임파선이 붓게 되는데, 주로 서혜부〔(鼠蹊部)사타구니〕에 있는 임파선이 붓고 딱딱해집니다. 소위“가래뿔”이라 하는 것이며,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겼을때와는 달리 조금도 아프지도 않고 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별치료를 하지 않아도 일정한 시일이 경과하면 자연히 없어집니다. 마치 치유가 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



● 탈모현상

나, 이것은 나은 것이 아니라 병균이 몸속으로 파고 드는 현상입니다.

③ 통증없는 발진, 수년간 반복되는 재발증상

제 2기 증상-감염후 3개월이 되면 피부나 점막에 발진이 생기게됩니다. 처음에는 붉은 반점으로 시작하여, 점차 여드름같이 되었다가 농포(고름이 잡힌 물집)로 변합니다. 나타나는 시기에 따라 크기도 다르고 양상도 달라서 여러가지가 있으나, 색이 붉다해서 장미진 이라고도 합니다.

이 장미진은 전신에 나타나지만, 특히 등 가슴·외음부 등에 잘 생기며, 손바닥과 발바닥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반을 흔히 볼 수 있는데, 특히 여성에서는 목주위에 흰점이 나타나는 것이 특이합니다. 이러한 발진은 조금도 아프거나 가렵지도 않은채 약 2-3주일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자연히 소멸되나, 수년간은 재발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외에 외음부나 항문주위에 “콘디롬”이 생기기도 하며·발진이 나타나기에 앞서 두통, 미열, 식욕부진, 근육통 등 몸살 비슷한 전신증상이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머리털이 빠지는 증상인데, 다른 원인에 의한 탈모증과는 달리 매독의 경우는 빠지는 상태가 지지분하여 마치 좀이 뜯어 먹은것같은 불규칙한 모양을 띠웁니다.



● 매독발진(장미진)